

# 제3장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 1. 국가재정운용

### 세계 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향후 경기 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 미국의 경기개선 추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 중국 등 신흥시장국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와 수출 등 일부 실물경기지표의 개선 추세가 둔화
- IMF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를 반영하여 2013년 성장률을 0.2%p 하향 조정한 3.3%로 전망하였으며, 2014년 성장률은 4.0%로 예상
- 또한, IMF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2013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주요국의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전망시점	World	미국	유로	일본	중국
2012년 10월	3.6	2.1	0.2	1.2	8.2
2013년 1월	3.5	2.0	-0.2	1.2	8.2
2013년 4월	3.3	1.9	-0.3	1.6	8.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January · April 2013.

## 국내 경제 전망

-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3년에는 작년의 경기둔화로부터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2.6%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14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내수는 민간소비가 실질구매력 상승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투자도 점차 개선될 전망
  -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개선과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2013년에는 2.3%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3.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투자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모두 부진이 완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13년에 낮은 상승세를 지속한 후, 2014년부터는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국가경제 성장 추이

구 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OECD	IMF
경제성장률(%)	2.7('13)	2.6('13)	2.6('13)	2.6('13)	3.6('13)
	4.0('14)	3.8('14)	3.6('14)	4.0('14)	('14)

## 재정운용 방향

-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은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재정정책은 당분간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한 재원 전달체계를 점검하여 지출효과성을 극대화
  
- 중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전제로 국정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
  - 세입확충 및 세출구조조정 등 재원마련을 전제로 실행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할 필요
  
-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출을 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시적 지출억제 보다는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 마련
  - 비과세·감면 정비 : 비과세·감면 규모를 하향 조정 예정
  - 세출구조 조정
    - (경제분야) SOC 등 재량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가운데 국정과제 재투자를 통한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
    - (복지지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

## 2. 우리구 재정운용

### 재정여건

#### □□ 지난 5년간 재정규모 추이

- 우리구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10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소폭 감소를 보였고,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1년 급증하여 상승추세에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과 부동산 중심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에 비하면 중장기적인 구정발전을 위한 과제수행과 필수 현안 사업, 주요 공약사항 등 새로운 재정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만성적인 투자 가용재원 부족이 전망됨.

< 최근 6년간 재정규모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예산총계 (전년대비 증감율)	224,200	265,434 (18.4%)	259,549 (△2.2%)	292,333 (12.6%)	328,679 (12.4%)	338,127 (2.9%)
일반회계 (전년대비 증감율)	212,425	254,423 (19.7%)	249,667 (△1.9%)	284,936 (14.1%)	314,086 (10.2%)	329,155 (4.8%)
특별회계	11,775	11,011	9,882	7,397	14,593	8,972

※ 최종예산기준, '13년은 추정치

#### □□ 국가재정 의존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최근 수년간 중앙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가 급증하여 국고보조금이 늘어남으로써 세입(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의존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구의 의존을 심화시켜 재정의 경직성 증대와 만성적인 재원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하므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자체 수입원을 늘려주는 제도개선과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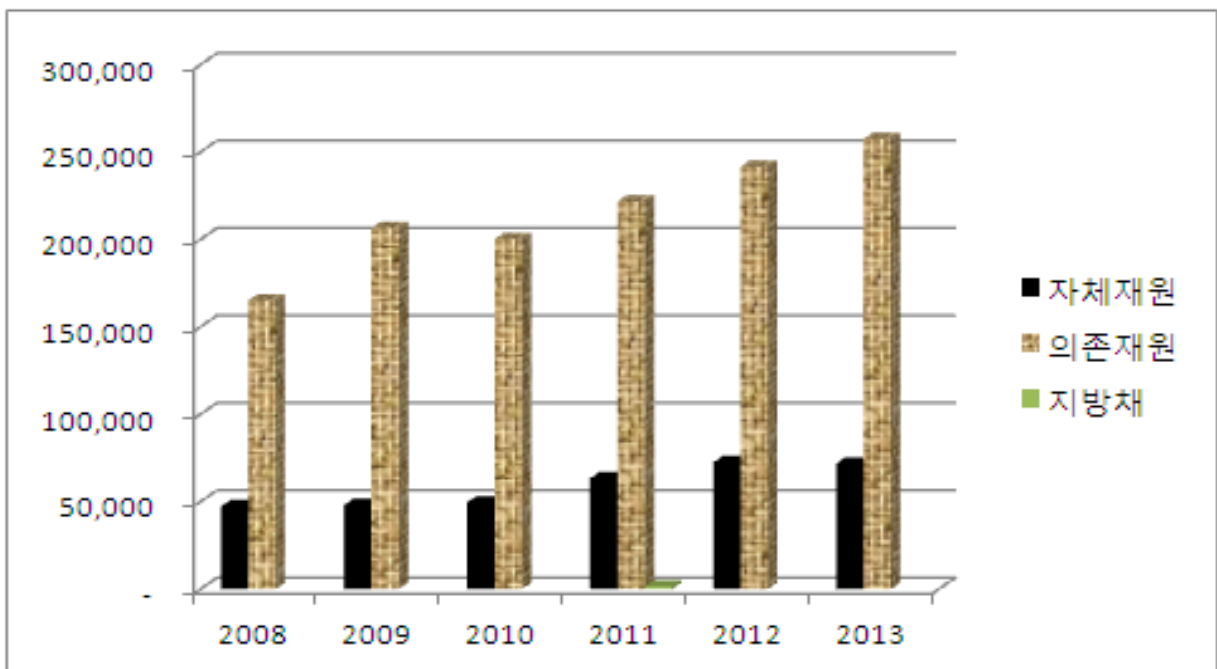
< 일반회계 최근 6년간 세입구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세입총계	212,425	254,423	249,667	284,936	314,086	329,155
자체수입 (총액대비 비율)	47,285 (22.3%)	48,065 (18.9%)	49,509 (19.8%)	63,305 (22.2%)	72,453 (23.1%)	71,677 (21.8%)
지방세	22,490	22,723	23,760	41,245	42,240	44,037
세외수입	24,795	25,342	25,749	22,060	30,213	27,640
의존수입 (총액대비 비율)	165,140 (77.7%)	206,358 (81.1%)	200,158 (80.2%)	221,631 (77.8%)	241,633 (76.9%)	257,478 (78.2%)
지방교부세	12,656	11,433	6,256	7,927	7,483	5,940
조정교부금	27,239	26,606	29,314	34,625	32,155	31,766
재정보전금	1,200	3,710	4,300	1,200	1,200	1,200
보조금	124,045	164,609	160,288	176,379	200,795	218,572
지방채 (총액대비 비율)				1,500 (0.5%)		

※ 최종예산기준, '13년은 추정치

(단위: 백만원)



## 재정운용 방향

### 기본 목표

- ◇ 향후 5년간 구정운영 중점과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 ◇ 중장기적으로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한 구정비전 실현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점진적 자원배분 확대
- ◇ 단기적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우선 자원배분 중점

-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 구정발전 목표와 역점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정 배분
  - 지방세수 및 각종 국·시비 확보 노력으로 구정목표 수행 뒷받침
- 건전재정 기조 유지
  - 투자 가용재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위주로 배분
  - 기존·신규사업에 대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유지 및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우선 투자
  -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